

한국마사회가 그랑프리 출전 예정 마 인기투표 결과, 서울에서는 '신데렐라맨' (한국, 4세, 거, R123, 이신영 조교사, 루키 오픈리 마주이) 488표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클린업조이' (미국, 4세, 거, R127, 김효섭 조교사), '소통마교' (한국, 4세, 거, R114, 하재홍 조교사) 순으로 득표했다. 부경은 '트리플나인' (한국, 3세, 수, R118, 김영관 조교사, 최병부 마주이) 674표로 1위를 차지했다. '볼드킹즈' (미국, 수, 3세, R121, 율솔리 조교사, 임용근 마주이)가 549표로 2위, '영천에 이사' (한국, 수, 3세, R95, 박광렬 조교사)가 3위를 차지해 상위 순위를 3세마들이 모두 차지했다.

서울 14두, 부경 13두 총 27두에 대한 1표가 진행된 이번 투표는 총 2151명이 투표에 참여한 1인당 1회인 한해 팻터라파크 서울 소속 마필 2두, 부경 소속 마필 2두를 투표해 총 4두를 투표했다. 이번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9마리, 부산 7마리가 우선 출전권을 가진다. 서울은 '신데렐라', '클립컬조이', '소름시대', '칩퍼레드겐', '클립컬천하', '메니머니', '피노누이', '대한장군', '담양축제' 총 9두가, 부경은 '트리플나인', '볼드킹즈', '영천에이스', '해바', '노바디캐치미', '간디아', '검포스카이', 총 7두가 출전 우선권을 가진다.

광명 1경주

박정우의 승부경주 <27일>

광명1경주
 득점 우위인 5번 류재은과 연속
 입상을 잇고 있는 2번 강철호가 선
 두경쟁 전망된다. 모두 자력승부 가
 능한 선수들로 힘 대결 전망되고 있
 는 가운데 노련한 6번 이승주에 마
 카 노릴 수 있겠다. 5-2 복승 주력에
 좀 더 편찮은 배당 노릴 경우 5-6,
 2-6 공략할만하겠다.

특점 우위인 3번 김승근이 선전 기대된다. 나머지 착순을 찾는 편성이다. 5번 황영근이 선행을 통해 경주 주도권 장악에 나설 경우 3번이 활용하는 주입이 기대되고 7번 정현호가 마크 통해 입상권 진입 노릴 전망이다. 3-5.7 쌍승 분산구매를 노력볼만하겠다.

특정 우위인 6번 최재봉과 강갑자 3번 김원호가 선두경쟁 전망된다. 이들은 친분 있는 선수들로 협공이 전망된다. 6번이 선행에 나설 경우 3번은 추입 노릴 수 있겠다. 이들 상대로 노련한 1번 여민호가 마크 노릴 전망이다. 6-3 복승에 6-3-1 삼복승 받친다.

전체순위 1위인 슈퍼특선반 7번 이현구가 단연 돋보이는 축으로 후착맞기 편성이다. 7번과 김해-동창원연합 2번 차봉수가 협공 기대 속에 강자 마크에 능한 5번 김형완이 마크 도전하겠다. 7-2.5 쌍승 분산구매를 승부해볼만하겠다.

경륜위너스 예상부장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브리더스컵 승리팬 서울-부경 오픈 모두 우승
28일 '파워블레이드' '오뎅오뎅이'로 최초 도전

김영관 조교사(55)가 '슈퍼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단 한 경주 우승만을 남기고 있다. '슈퍼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경마의 최고봉인 서울-부경-경주-대전 경주를 모두 우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아무도 오르지 못했던 미담봉이다. 김 조교사가 그 대기록에 마지막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조교사는 지금까지 서울-부경-대전 우승경주 13개 중 12개 경주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브리더스컵 뿐이다.

김 조교사는 '현대판 백락'으로 불린다. 백락은 중국 주나라 때 사람으로 말을 잘 식별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경주마의 관상을 보고 잠재력을 판단하는 통찰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성적이 이를 증명한다. 김 조교사는 한국경매 100년 역사의 내로라하는 서울경매공원 조교사들을 따돌리고 지난해 한국경매 7년 연속 통합 1등(2007~2014년)을 차지했다. 7년간 우승으로 벌어들인 돈만 308억원에 달한다.

우승을 차지한 대회를 보면 그의 활약상은 더욱 돋보인다. 한 해 최고의 경주마를 선정하는 그랑프리 대상경주에서만 무려 3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또 삼관대회(KRA컵 마일, 코리아대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퀸스투어시리즈(목شم배, KNN배, 경강남도시사배), 대통령배, 코리아오픈스즈 등 국내에서 시행된 최고의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한 유일한 조교사다.

그의 마방엔 명마들이 즐비하다. ‘영광의신화’ ‘북별신화’ ‘록밴드’ ‘트리플나인’ ‘감동의바다’ 등이 그들이다. 현재 47두를 위탁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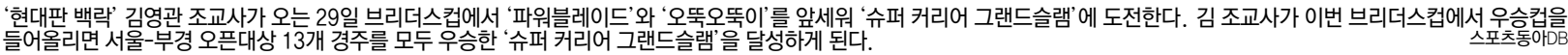
김 조교사는 2004년 3월에 데뷔했다. 26일 기준 통산전적은 3894전(830/523/412)으로 승률 21.3%, 복승률 34.7%, 연승률 45.3%다. 최근



현명관 회장, 경마객 의견 수렴 등 소통

“안전한 모바일 베팅을 위해 와이파이 접속 시 보안 인증 단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경마 이용자의 재미를 배가하기 위해 입상만 뿐 아니라 꼴찌를 맞추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 21일 경마이용자와 한국마사회 현명관 호랑과의 대화 자리인 'C2C토크'(CEO to Customer Talk)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C2C토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 의견 수렴 및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고객 중심경영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



1년 전적이 419전(110/66/43)으로 승률 26.3%, 복승률 41.0%, 연승률 45.3%를 기록하고 있다.

김 조교사가 부경경마에서 19조를 맡은 지는 이제 11년에 불과하지만 그는 조교사 부문에선 최고로 우뚝 올라섰다.

김 교사의 '슈퍼 커리어 그랜드슬램' 대기록
이 눈앞에 왔다. 지난 9월6일 열린 오너스컵에서

‘록밴드’와 ‘트리플나인’으로 우승과 준우승을 휩쓸어 이미 미담봉의 8부 능선을 넘었다. 마지막 남은 대회는 브리더스컵이다. 기회가 왔다.

제8회 브리더스컵(7경주, 2세 암수, 1400m)이 오는 29일 열린다. 브리더스컵은 2세마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로 내년도 삼관마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김 조교사는 이번 브리더스컵에 '파워블레이드'(한국, 수, 2세, R29)와 '오희목이'(한국, 암, 2세, R49)를 출전시킨다.

‘파워블레이드’는 ‘메니피(부마)’와 ‘천마총(모

마)'의 자마도 혈통적인 측면에서 기대치가 높다. 1400m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유리한 부분이다. 또 '오희'는 부경의 브리더스컵 예선전인 경남신문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말로 3전 3승의 100% 승률로 이번 브리더스컵에도 100% 우승에 도전한다.

김 조교사가 브리더스컵을 품고 한국경마 최초로 모든 오픈경주를 석권하는 '슈퍼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역사의 시계는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연제호 기자 soi@donga.com

홍당무의 경마오디세이

| 경주마는 무엇을 먹고 사나?

경주마는 운동선수 못잖은 체력이 요구된다. 그럼 경주마는 뭘 먹고 살고 있으며 특별한 보양식은 뭘까.

●말은 적게, 자주 먹는다?!

말들은 덩치에 비해 위장이 매우 작고, 적은 양의 음식물을 소화하기에 적합하도록 발달했다. 야생에서 돌아다니면서 적은 양의 풀을 뜯어먹기에 최적화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 가축화되면서 생활습성이 바뀌게 된다. 가축으로서의 말은 농업, 운송 등에 활용되기 시작된다. 자연스레 늘어난 에너지 소모량에 걸맞은 영양분 섭취가 필요하게 되면서 적은 양이 조금은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말들은 야생의 생활방식을 전부 버리지 못해 일반 포유동물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할 수는 없다.

경주마의 경우 가족으로 활용되었을 때보 경주마들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조교

경주마의 경우 가족으로 활용되었을 때보다 몇 배의 운동량이 요구된다. 일반인들은 경주에 출전하지 않으면 쉬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주마는 경주 후 며칠을 쉬 뒤 다음 경주에 출전 할 때까지 매일 몇 시간의 훈련을 소화해야 한다.	경주마들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조교사들은 자신만의 노하우에 따라 급사량을 조금씩 달리하기도 한다. 경주마의 성격이 수습과 직결되는 만큼 자신만의 노하우는 철저한 비밀에 부쳐지기 마련.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경주마들의 특별보양식에 대해선
---	---

500kg의 체중을 가진 경주마가 경주조교
와 같은 강한 운동을 할 때 소비되는 최소
에너지요구량은 2.6Mcal(미국 NRC 사양표준
기초이다). 사람과 비교해 보통 성인남자의
에너지섭취량 2.4Mcal의 10배가 넘는 양이
다. 일반적으로 경주마는 자기 체중의 2~
2.5%의 먹이를 하루에 먹는다. 경주마의 체
중을 500kg으로 가정하면 약 10~12.5kg의
먹이를 먹는 셈이다.

소문만 무성할 뿐 그 실체를 찾기는 어렵다.
특별 보양식에 관해 놀라운 사실은 초식동
물인 말에게 '동물성 사료를 급사한다'는 설
이다. 주로 배아나 지네, 토종 닭 등 사람들도
즐거는 보양식인데, 뱀과 지내는 주로 가루를
내 사료에 섞거나 달여 먹인다고 한다. 물론
최근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첨가된 보충
제 등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 이런 경유가 없
다고는 하지만 과거 독설시절만 하더라도 흔

●경주마의 주식은 흥당무가 아니네?

말의 먹이라고 하면 흔히 홍당무를 생각한다. 많은 경우다말들이 홍당무를 좋아하긴 하지만 홍당무는 주식이 될 수 없다. 홍당무는 사람으로 치자면 일종의 기호식품이다.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려진 각설량과 마찬가지로 말	으로는 인삼 · 산삼가루가 대표적인 예인데, 각 마방에서 성적이 좋은 경우다들에게는 그 양이 특히 집중된다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부익부 빈익의(富益富 貧益貧)의 공적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
--	--

경매칼럼니스트

경마칼럼니스트